

“감사원, 한전공대 표적감사 중단하라”

지역의원들 국회서 규탄 성명 “입법권 부정... 의혹 근거 없어” “국가경제 발목 잡는 자해 감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와 관련, “지방교육 숨통 끊는 ‘정치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발목잡는 ‘자해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과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송갑석·이용빈·소병철 의원 등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실지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사원이 마침내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명 학생들의 배움터인 한국에너지공대까지 정치 감사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공대 설립 적법성 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형석·송갑석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학교 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사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마저 적법성을 운운한다면 감사원은 국

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감사 착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의혹들

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설립인가 특혜 의혹, 전력기반기금 목적외 사용 의혹, 부영

CC 특혜 의혹은 이미 수차례 반박된 역사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특별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아 교육부의 특혜나 자의적 판단이 끼여들 여지가 없고, 전력기반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학교를 지원했다는 주장도 지난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영 CC 잔여부지 특혜 의혹은 용도 변경과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도 하지 않은 이익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허황된 의혹 제기에 근거한 감사는 ‘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공화국의 정치 감사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발목잡는 ‘자해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기자

김영록 지사 “한전공대 설립 투명... 의혹·특혜 없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감사 착수에 대해 “전남도는 어떠한 특혜를 준바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한전공대 설립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 점의 의혹이나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며 특혜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공익 감사로 알고 있다”며 “전남도는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노력을 해온 만큼 감사원에 성실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가 시도민의 염원으로 설립됐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도민들의 호응이 크고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빠르게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8일부터 한전공대를 비롯한 대학 설립과정에 연관된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보수단체가 신청한 공익감사 청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감사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한국전력공사, 전남도, 나주시 등 5곳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정치권에선 전 정부의 정책지우기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항지 기자

“홍보 신선” vs “비엔날레 위상 저하”

‘광주비엔날레 홍보영상’ 논란 ‘소시지’ 소재 유튜브 영상 게재 “천박한 언어유희... 격 떨어져”

광주시가 자체제작한 광주비엔날레 홍보영상이 논란이다. 영상 소재로 ‘비엔날레’와 발음이 비슷한 ‘비엔나’ 소시지를 활용하고 있어서다. 일부 네티즌들은 “참신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비엔날레 격이 떨어진 것 같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다. (사진)

광주시는 지난 7일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빛튜브’에 ‘2023년 4월, 광주로 온다. 절대 비엔나를 둘러싼 치열한 사투 비엔나르레의 제왕 (feat. 줄줄이 비엔나르레)’ 영상을 업로드 했다. 광주비엔날레 홍보용으로 제작한 40초 분량의 흑백 영상에는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이 ‘줄줄이 비엔나’를 쥐고 광주비엔날레 초록습지공



원에서 한 남성과 추격전을 벌인 결과 소시지를 지켜낸다는 내용이다.

영상은 게재된 지 만 하루만에 3만 1000여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일부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넘 기발해요. 광주시 열일하네요” “비엔나 소시지 먹을때 마다 비엔날레 생각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니 잊고 있었던 비엔날레를 꼭 다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라고 밝혔다.

상당수 시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시민은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라

면서 비엔나 소시지에 비하하니. 광주시 청 책임감 느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시민도 “광주비엔날레가 이렇게 소비되면 안된다”며 “혈세낭비의 전형이자 최악의 행정기획이다. 진심 최악보다 더하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난해한 비엔날레에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친숙한 이미지 조성을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언어유희로 비엔나 소시지를 소재로 활용한 측면이 컸지만, 여기에 4월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이어 9월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막, ‘줄줄이 비엔날레가 개막한다는 의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삶에서 비엔날레가 멀리 있는 느낌”이라며 “관심이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상지 기자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남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